

KT, 블록체인으로 기부금 투명하게 관리한다

'P2P 기부' 시스템 구현... 연내 시범 적용

KT는 KT그룹희망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KT와 KT희망나눔재단은 봉사활동 포인트를 기부받아 적립하는 '기브스퀘어' 포털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개인이 기부한 포인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기부금 집행 내용과 전달 경로 등이 기부자가 이용하는 분산 원장에 공유된다. 기부자가 직접 적립과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KT는 설명했다.

KT와 KT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안에 라오스 감염병 예방 기부 캠페인에 블록체인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브스퀘어를 개편해 개인 간 직접 기부



KT가 KT그룹희망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구축한다. KT 모델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플랫폼 구축을 소개하고 있다. /KT

및 사용 내용 확인이 가능한 'P2P 기부'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P2P 기부가 구현되면 취약계층 개인이 직접

사연을 올려 기부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아쉬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지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인 줄 모르겠던데요. 기존 백화점 세일 이랑 다르게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한 백화점에서 만난 소비자가 한 말이다.

지난달 28일 개막해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 유통채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업체들은 특가 세일을 통해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가을 정기세일과 맞물리고, 할인 판매 제품도 이월 상품이 대부분이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 전망에 기대감

이 높지 않은게 사실이다. 아울러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행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코스페 기간 버스킹, 라이브 그래피티쇼 등의 이벤트는 서울지역인 명동, 강남, 삼성역, 홍대, 동대문 등에서만 진행됐다. 또한 소상공인에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3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배제하게 아

니나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아닌 '일반적인' 할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여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며 업체들은 특별한 상품이나 높은 할인율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향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업체가 맞대고 고심할 필요가 있다

/parkiu7854@metroseoul.co.kr

LGU+ "화담숲 단풍여행에 초대합니다"

LG유플러스는 가을여행 시즌을 맞아 1박 2일 단풍 여행, 숲 속 영화관 등의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경기도 화담숲에서 진행되는 가을단풍 여행에 초청한다. 선정된 고객들에게는 ▲1박 2일 곤지암 리조트 숙박 ▲가족사진 촬영 ▲가족 인화 및 모바일 앨범 제공 ▲지력 민찬 ▲화담숲 입장권 및 간식 등이 제공된다.

응모는 오는 10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15일 홈페이지 공지 후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고객 100명은 동반자 3인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4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곤지암 리조트에서는 숲 속 영화관 이벤트도 열린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7일과 내달 3일 경기도 곤지암 리조트에서 야외 영화관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 고객 감사 프로모션은 휴대폰 번호 별 1회 응모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1박 2일 단풍 여행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0월 5일 (음 8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 6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72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잠시 지체. 8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 소** 49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61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해야 한다. 7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85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 호랑이** 50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62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 할 때가 있는 법. 74년생 1%로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86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 토끼** 51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할 것이다. 63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지 마라. 75년생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87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먼저 하나 고민.
- 말** 5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 64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마무리. 76년생 공기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라도 쓰는 법. 88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 원숭이** 53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65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다. 7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89년생 일 시작 감정으로 행동하면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 말** 54년생 신장계통의 질환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66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78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 90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은 그날.
- 양** 55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6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재충전이 필요. 79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9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하지 마라.
- 원숭이** 56년생 충고는 경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68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온다. 80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날지 고민. 92년생 신세 진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 닭** 57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69년생 불행은 일 밖으로 내뱉으면 더 커지는 법이다. 81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93년생 오늘 최선의 해결책은 무투 타협이다.
- 개** 58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70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스스로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82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주의. 94년생 내 것이 작아 보이나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 돼지** 59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1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83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95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2		1				5	
		8	7		3	2		
8		2			6			9
	7						2	
9		6			5			4
		4	2		8	1		
	1			7			4	
			9		1			

				4	2	9		3
						6		8
					8	3		1
				3			5	
3		8	2			1		
5	6	1						
1			4	7			5	2
			7				6	1
9	8					3	4	

스도쿠 정답								
2	9	1	6	5	8	9	3	4
8	7	6	9	1	5	2	8	3
5	9	1	8	2	7	6	4	3
7	4	5	2	8	1	9	6	3
6	2	8	7	6	9	1	5	4
6	1	9	4	5	2	7	8	3
1	6	2	9	1	8	5	7	4
9	5	7	6	1	8	4	2	3
4	8	3	5	7	6	9	1	2
1	7	4	1	5	9	2	8	6
1	6	9	8	2	4	5	3	7
2	5	8	6	4	7	9	1	3
7	2	4	3	6	8	1	9	5
6	4	1	5	9	2	8	7	3
9	8	5	7	1	6	3	2	4
5	1	4	8	6	7	2	9	3
8	2	7	9	1	5	6	4	3
4	9	6	3	7	4	5	1	8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4계 실패를 대하는 자세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상태에서 한 단계라도 더 나아가고 싶어 한다. 더구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실패를 용인하는 회사도 있다. 사무용품과 의료용품 등을 제조하는 3M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데 색다른 제도가 있다. 부트레킹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그것이다. 부트레킹은 직원이 자기의 업무 이외의 분야에 근무시간의 15%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연구 결과가 실패로 끝나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렇게 실패를 용인한 결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실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까닭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람들도 부트레킹 정신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패를 겪은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는 조그만 실패에도 힘들어 하고 지나치게 실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만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입사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사업을 하다 부진에 빠지는 게 그런 사례들이다.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하다. 자기 혼자만 시달리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픔을 과장하고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실패든 힘들다. 그러나 지나치게 실의에 빠질 필요도 없다. 때때로 상담을 오는 삼십 대 자영업자가 있는데 그는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지난번 벌였던 가게는 접었어요." 망했다는 말을 하면서 허허 웃는다. 표정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 새로운 아이템을 자주 시도하고 한두 번 실패를 하는 게 아니다. 자주 실패하는 걸 보면 진짜 큰 상인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그런데도 항상 웃는다. 그가 보는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 이후를 보면서 새로운 마케팅을 구상한다.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새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큰 상인이 되고 거부가 되는 사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그러나 배움이 있다면 실패가 힘들지만 한 건 아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실패라는 경험이다. 아픔을 토대로 아픔을 이겨내면 "실패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호